종단지도자 "임인년, 불교 자주권 수호" 발원

종단협, 1월 18일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종교편향 저지 통한 사회통합
올해 대선서 공명선거 당부해
정치권 인사 대거 동참 '눈길'
文 "불교 가르침 널리 퍼지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각 종단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올해를 불교 자주권 수호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다종교사회의 모범국가로 만들고자 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진정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불교 자주권 수호에 뜻을 모았다.

원행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 노력을 당부한데 이어, 올해 예정된 대선 등에서의 공명선거, 종교편향 저지를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당부했다.

스님은 "올해 불자들이 중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소욕지족하고 친환경적 생활습관 길들이기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보살행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종교가 각각의 영역에서 국민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며 "특히 정치나 공공기관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종교적 편향사례들로 인해 더 이상 불교계와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노력해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의 모범국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시국에 부단한 노력을 이어온 불교계에 감사를 전한데 이어 "이같은 노력과 달리 다종교,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정신과 거리가 먼 일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불교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불자들의 몫임을 알고 불자들의 사자후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신년인사를 통해 "올해도 우리 앞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며 "모든일은 인연에 맞춰 가고옴이 분명하니 항상 무욕의 마음으로 무상의 도리를 지키면 모든 일이 원만하고 평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도 신년발원을 통해 "무시무종의 시간 속에서 부처님의 사자후는 우렁차고 구류중생의 가슴 속에 부처님 일대시교는 밝고 밝건만 탐진치 삼독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중생의 땅은 여전히 오탁악세에 머물러 있다"며 "종단협 사부대중은 더 큰 원력으로 불일증휘의 지혜를 연마해 더 큰 정진으로 법륜상전의 정도를 넓혀가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과 청와대불자회장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국회정각회 소속 주호영 · 이헌승 · 조명희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김영배 · 오영훈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손창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조기열 국회직원불자회장, 김영문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사회를 맑히는 불교의 가르침과 역할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불교는 물이 가득찬 연못과 같이 고요하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국에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해 온 불교계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자연과 깊이 연결돼 있음을 알고 익숙함 대신 불편함을 선택하며 점차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변화해 가고 있다. 모두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라며 "불교와 큰스님들의 가르침이 멀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희 장관은 대독에 앞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교가 앞장서고 희생해 주셨다"며 "불교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속히 아물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은 "사회적 위기 속 불교계가 무소의 뿔처럼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발원한다"며 "포용과 통합이 중요한 시대, 불교의 자비정신이 연등과 같이 빛나 우리사회를 맑히길 바라며 자비심과 화쟁정신의 가르침을 따라 국태민안과 불교중흥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만들 평등한 세상"

조계종 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량유세 동참

1월 19일 중구 · 용산구서 진행돼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 있어"
2월 25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서

"만들자, 만들자, 차별금지법(평등~), 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월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부암동재래시장 앞을 지나는 유세차량에서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 주제곡을 개사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차량 옆면에는 '차별금지법' 이란 문구가 빨강, 파랑 하트 무늬와 함께 쓰여 있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이끄는 유세차량이다.

유세차량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차별을 깨고 내 삶에 자유를, 차별에 맞서 평등한 존엄을"을 외치는 이들은 바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유세단' (이하 유세단). 이날 거세지는 눈발 속에서도 유세단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지금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벌금지법 있는 나라' 등의 글귀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후암동에서 시작해 이태원과 한남동, 서울역까지 중구와 용산구 곳곳을 누볐다.

유세단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 63일 농성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한 활동이다.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7시까지 서울 시내 곳곳을 유세차량과 도보로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1월 19일 중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진행된 유세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동신 스님, 최종진 사회노동위원, 양한웅 집행위원장 등이 동참했다.

이날 출발지에서부터 유세차량에 오른 지몽 스님은 직접 제작한 대본을 읽어가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몽 스님은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우리 일상을 배려와 공존의 삶으로 이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19일 중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량 유세에 동참했다.

유세단 10여명은 유세차량을 뒤따르며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전했다. 눈보라 속에서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유세단에 관심을 보인 몇몇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을 표하며 유세단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유세는 오후 7시, 해가 다 져서야 마무리 됐다. 최종진 사회노동위원은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불평등의 격차가 줄어들고 사회가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은 2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금요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수도권 각 지역을 돌며 시민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韓불교 중흥 위한 지도자 네트워크 출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불교포럼 창립 10년 만에 재구성

윤석열 · 안철수 대선후보 참석

불교에 기반을 둔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인적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불교리더스포럼' 을 출범하고 불교외호 세력이자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을 발원했다. 이날 자리에는 불교계 안팎 인사는 물론,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17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불교리더스포럼 5기 출범식을 봉행했다. 불교리더스포럼은 10년 전 창립한 불교포럼을 계승한 불교지도자네트워크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당연직 총재로,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지도법사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불교리더스포럼 5기 상임대표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선임됐으며 고문단장에 김동건 불교포럼 초대대표, 간사장에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국장이 소임을 맡은 가운데 지역포럼과 법조 · 국회 · 경제 ·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활동하는 집행위원회로 구성됐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은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을 봉행했다.

불곡산 대광사 2022년 신입생 모집

명상 상담 대학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13일(일) 까지

▣ 강의내용 :

과 목	강의내용
불 교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양사상, 유식과명상, 천태소지관
명 상	위빠 사나(알아차림, 자기집중, 호흡) → 이론, 실기 병행 및 무념 치유(특강)
상 담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 가족 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 및 실체

▣ 강의시간 : 기본과정 [야간] 매주(화) 19:00 ~ 22:00
심화과정 [야간] 매주(수) 19:00 ~ 22:00
전문과정 [야간] 매주(목) 19:00 ~ 22:00

▣ 수 료 후 특 전 : 명상 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특 강 : 매주(화) 테라피요가 명상

▣ 대 상 자 : 명상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능

▣ 접수방법 : 대광사 종무소 방문 또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인터넷 입학 신청

▣ 문의전화 : 031)715-3000

▣ 수 강 료 : 한 학기당 170,000 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031-715-3000 / 3404